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2024
FEBRUARY

VOL.

262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Open Doors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 신명기 31장 6절 -

가장 깊은 어둠 속의 빛 (영상 포함)

- 북한의 지호
- 예멘의 살레
- 나이지리아의 사가랴 목사

2024 WORLD WATCH LIST

-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발표
- 기독교 박해 동향

Heart To Heart

- 한국오픈도어 모바일 주간 소식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4년 2월호 | 통권 262호 |
등록번호-중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업)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황자경, 박인영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유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새별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SUPPORT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NTENTS

04 가장 깊은 어두움 속의 빛 (영상 포함)

- 북한의 지호
- 예멘의 살레
- 나이지리아의 사가랴 목사

11 2024 WORLD WATCH LIST

-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발표
- 기독교 박해 동향

22 Heart To Heart

- 한국오픈도어 모바일 주간 소식지 "오픈도어위클리 (Open Doors Weekly)"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오픈도어는 특별히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성도들에게
다가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살기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살아남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에 있습니다.

월드와치리스트의 30년 넘는 역사는 오픈도어가 전세계 박해에
대해 권위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에 직면한 교회가 번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픈도어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두움 속의 빛

북한에서 지호는 작은 라디오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도움
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기독교 박해는 더 극심해지고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복 입은 경찰관들은 북한의 작은 가정 집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서랍을 뒤지고 그릇을 깨트렸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삽으로 흙을 퍼붓고 분노한 채 뜰을 찢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딸과 함께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이 남성이 기독교인이라는 입증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지러 온 것을 결국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시는 서로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지요.”

당시 학생이었던 지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남자는 비닐에 싸여 뜰에 묻혀 있는 성경을 발견했어요. 경찰관은 의기양양하게 그 책을 아버지 발에 던졌죠. 저와 아버지는 흐느껴 울었어요. 그 순간, 저희는 다시는 서로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지요.”

지호의 아버지는 밖으로 내쫓겨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

북한은 예수님을 따르기에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이 곳은 또 다시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1위를 기록했고 그 곳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처럼 탄압하는 정권 하에서는 성경을 소유하는 것도 투옥으로, 기독교 신앙은 강제노동수용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각되면 성도들은 고문과 처형의 위험을 무릅쓰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는 아버지의 소식을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붙잡혀 가신지 몇 년이 지난 뒤에 믿을 수 없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웃들처럼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지호는 식량에 대한 소식이 간절했고 매일 밤 아버지의 비밀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채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로운 음성이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저는 한 남성이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국가 프로그램과는 달랐죠. 그 음성이 말하길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호는 강렬한 기억에 사로잡혀 어안이 빙빙했습니다. “저는 마시던 차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걸 수년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한 마디 한 마디 거의 정확하게 말이죠.”

대가를 치러야 할지라도 신앙을 선택하다

그 이후로, 지호는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던 선생님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선생님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지호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400,000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내 성도들처럼 신앙을 비밀리에 지켜가고 있으며 살아남기 위해 매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빈곤은 국가 전역에 널리 퍼져 있고 러시아 및 중국과의 세관 문이 개방되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입 식품은 엘리트 계층과 군인들에게 가장 먼저 향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식량 공급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극심한 상황입니다. 지호가 말하길 “저희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 혼자일지도 모릅니다.”

지호와 같은 성도들은 이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전세계 교회들의 사랑, 기도, 그리고 지

만이 성도들로 하여금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

오픈도어는 25년 동안 북한의 성도들과 함께 하며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일했습니다. 실제로 100,000명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아량 덕분에 필수적인 영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호와 같은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존을 위해 여러분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지호와 같이 고립된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할 매일의 복음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북한의 성도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비상식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왜 잡혀 가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 나라 지도자들은 그들 이외에 그 누구도 숭배하지 못하게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 나라 지도자들 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저는 아버지처럼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언젠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현재로는 계속 라디오를 듣겠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소금과 빛이 될 거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호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실제 경험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 일어난 일들의 이야기가 합쳐졌습니다.



80,000

북한 성도들이 여러분 덕분에 식량 지원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000

성도들이 여러분의 선물 덕분에 영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400,000

으로 추정되는 성도들이 오늘날 북한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 주시겠어요?

기도합니다

- 지호와 같은 성도들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강화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이번 겨울, 굶주림에 직면한 북한의 성도들에게 오픈도어의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이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용기 있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북한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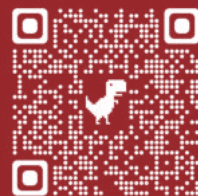
선물합니다

4만원: 한 명의 북한 성도가 생존할 수 있도록 식량 꾸러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만원: 고립된 북한 성도가 정기적인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12만원: 성도가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오픈도어_Open Doors South Korea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지호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스캔)



영상: 2024 월드와치리스트 영상 _
북한의 지호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후원하기에서 신청
계좌 입금: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예멘의 살레

위험에 처한 살레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놀라운 지지



살레의 휴대폰이 불길하게 울렸습니다. 또 한 번의 살해 위협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너를 찾고 있다. 너는 죽음 목숨이다. 네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다.”

메시지에 담긴 말들은 충격적으로 불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전도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 용감한 이 사람을 말이지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른 이들이 생명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삶을 걸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중동 국가이자 월드와치리스트 3위를 기록한 예멘에서 살아가는 살레는 주목할 만한 오픈도어 파트너입니다. 이곳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이슬람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중 약 70%는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가고 있고 절대 다른 신자와 만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신앙이 발각되면 학대, 투옥,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니다.

“우리의 삶을 걸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레는 어떻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지지 덕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살레가 고국에서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시작하고자 결정했을 때에는 예멘 내전에서 도망해 주변 국가의 난민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 때 예멘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용감한 전도사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저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난민 수용소에서 저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게 되었고, 저는 이들에게 같이 예멘으로 돌아가

함께 섬길 것을 격려했죠. 저희는 나라 안의 보다 안전한 곳으로 가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곳에서는 지도자들이 훈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어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그것은 아주 위험했습니다. 머지않아 살레의 형제와 다른 성도 한 명이 예멘 정부당국에 붙잡혀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지하에 숨다

사람들의 주목으로 위험에 처한 살레는 지하로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몇 시간을 울었어요. 어떤 날은 희망에 차고 강했고. 다른 날은 나약하고, 죄책감이 들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두웠던 그 시기에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리고 전세계 교회의 형제자매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격려 말이죠.”

그로부터 두 달 뒤에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살레의 형제와 성도가 감옥에서 석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형제를 통해 몇몇 죄수들로 하여금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살레는 예멘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살레는 현재 다른 성도들을 제자화하고, 가르치고, 목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멘으로 여행합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 덕분에 살레는 예멘의 70 가정에게 의료지원, 수송, 식량 꾸러미, 그리고 훈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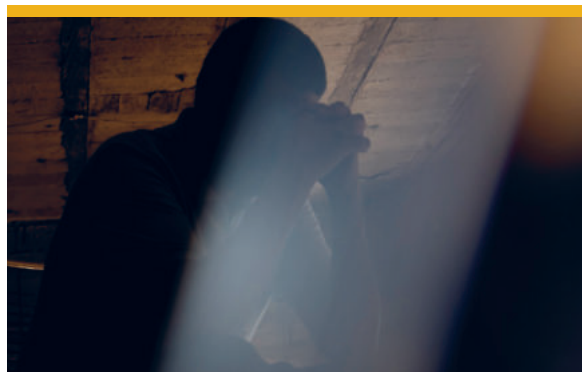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이 자원 없이는 교회를 섬길 수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중요하고 희망을 주지요. 저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요.”

살레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그는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고 예멘의 교회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위협 당하는 것을 알기에 저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부르곤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에 대한 저의 각오를 새롭게 하지요.”

“예멘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레의 비전입니다.

**보안 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기도합니다

- 예멘의 교회들 가운데 희망과 기쁨이, 힘과 격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 살레와 다른 지도자들을 보호해주시고 사역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저희 형제자매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준비된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용감하게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픈도어_Open Doors South Korea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살레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스캔)



영상: 2024 월드와치리스트 영상_
예멘의 살레

“저는 죽은 아내와 아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느꼈습니다.”



사가랴 목사, 나이지리아

지난 번 저희가 여러분과 나눴던 사가랴 목사의 이야기
기를 기억하시나요?

2023년 10월호 현장스토리 “나이지리아_사가랴 목사
는 아내와 아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픈도어_Open Doors South Korea 유튜브 채널
로 들어가시면 사가랴 목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스캔)



영상: 2024 월드와치리스트 영상_
나이지리아의 사가랴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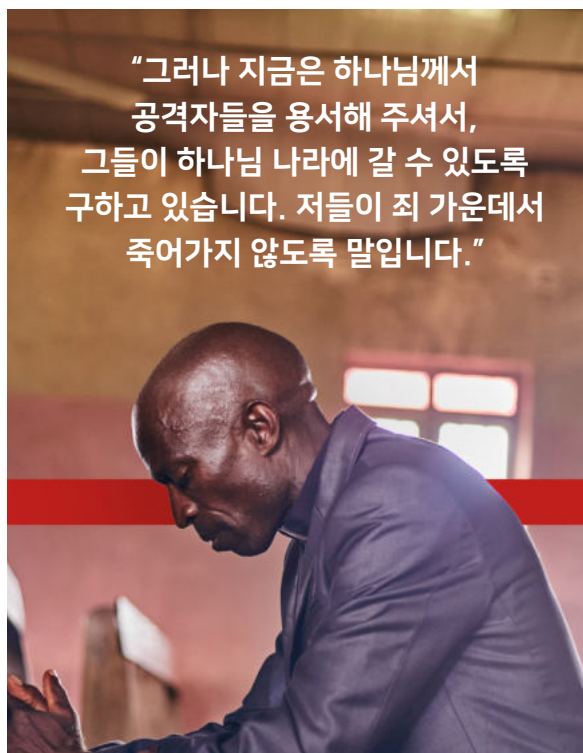
2024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에 따르면, 전세계
에서 신앙을 이유로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들 중 82%
이상이 나이지리아(6위)에서 발생했습니다.

연간 목록에서 신앙을 이유로 발생한 살인은 다른 어
느 지역 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크게 앞질렀습
니다. 이는 수년 간 지속된 동향입니다.

월드와치리스트에 등재된 사하라 사막 이남 26개국 중
18개국에서 최소 4,606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
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해당 26개국 중 15개국은 종
합적인 폭력 점수에서 가장 높음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성도들은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픈도어 ‘일어나라 아프리카 Arise Africa’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캠페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공격자들을 용서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WORLD WATCH LIST 2024

월드와치리스트 기독교 박해지도

기독교인들이 높음에서 극심한 정도의 박해로 고통받는 국가 전체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발표

월드와치리스트가 무엇인가요?

월드와치리스트는 오픈도어에서 기독교 신앙을 공언하고 실천하기 가장 힘든 국가들의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는 연간 보고서이다. 해당 목록은 폭력의 정도, 정부 규제 정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사회의 적대감에 근거한 것이며, 전 세계 기독교인이 겪는 박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광

범위한 연구,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들의 자료, 국내망, 외부 전문가들 및 박해 분석가들을 통해 전 세계 박해를 수치화하고 분석한 이 목록은 매년 초에 발표된다. 해당 방법론은 국제종교자유연구소의 검사를 받는다. 올해의 목록은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기간을 포함한다.

* 2024 월드와치리스트 박해지도는(A2)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전화/카카오톡채널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독교 박해 동향 2024년

Feyzabad, Afghanistan © Unsplash

수치로 보는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4998명이 신앙 관련 공격으로 죽임을 당했다. 수치는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교회, 기독교 학교, 그리고 병원에 대한 공격이 2,110건(2023년 월드와치리스트)에서 14,766건(2024년 월드와치리스트)으로 7배 증가했다.
- 기독교인들이 구타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한 사건이 29,411건(2023년 월드와치리스트)에서 42,849건으로 증가했다.

- 가옥에 대한 공격은 (4,547에서 21,431건으로)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 수치에서 371% 증가했다.
- 가옥에서 내쫓기거나 숨은 기독교인들은 124,310명에서 278,71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 3억 6천 5백만명의 기독교인들(전세계 7명 중 1명)은 신앙을 이유로 높은 정도의 박해와 차별에 직면한다. 이는 지난 해 3억 6천만명에서 늘어난 수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불안정한 상황과 함께 종교적 동기에 의한 폭력이 격렬해지다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폭력은 오래동안 대사막 이남 박해 양식의 분명한 특징이었다. 이 동향은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보고 기간 동안 심해졌다.

박해 정도가 “높음”이거나 그 이상인 종합점수를 기록한 사하라 사막 이남의 26개국 중 15개국은 폭력이라는 하위 범주에서 “극심히 높음” 점수를 기록했다. 일년 전, “극심히 높음” 폭력 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는 13개였다.

2024년 목록에서 전반적으로 폭력이 오른 원인은 교회와 기독교 가옥 및 사업에 대한 공격의 증가이다. 강도가 증가한다는 증거는 예를 들어, 교회 및 학교와 같은 기독교 건물에 대한 공격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에티오피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인 소유의 사업이 불에 타고, 약탈당하고, 몰수당한 건수가 급증했다. 종합적으로 박해 정도가 최소 “높음”인 사하라 사막

이남의 26개국 중 18개국에서 최소 4,606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2023년 9월 30일에 마친 2024년 목록을 위한 12개월의 보고 기간 동안 죽임을 당했다. 26개국 중 나머지 여덟개 국가에서는 살인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리고 전년도와 같이 나이지리아는 월드와치리스트에 등재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일어난 종교적 동기에 의한 살인 건수 10개 마다 9개를 차지했다. 분쟁 중에서, 그리고 분쟁의 여파로 폭력의 영향력에 대해 믿을 만한 보고를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국가들 가운데서 살인 건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명적인 공격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쫓겨난 점은 반기독교 폭력의 중요한 척도이다. 스위스 소재의 국내난민감시센터와 유엔난민기구의 정보는 2022년 말에 3,450만명이 월드와치리스트에서 최소 “높음” 정도의 박해를 겪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강제로 내쫓긴 자로 (난민, 그리고 실향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비쳤다.

3,450만명 중 1,620만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되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박해 정도가 최소 “높음”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26개국에서 살아가는 5억 3400만명의 기독교인 중 3%에 해당한다.

폭력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프리카의 전체적인 상황은 복잡하고 각각의 사건들은 지역 상황의 광범위한 영역에 따라 발생하지만, 전역의 불안정한 상태에 대한 이슬람 극단주의 부류들의 착취는 공통된 맥락이다. 한 예로: 말리에서 이미 악화되던 안보 상황은 프랑스 군이 2022년 11월에 마침내 떠나자 국제 안보 구조의 외양을 잃었다. 그리고 말리 유엔평화유지군(MINUSMA)은 2023년 12월말까지 완전히 철수해 지하디스트의 공격을 위한 여지를 더 남겼다.

또 하나: 2023년 니제르와 가봉에서 정권 교체를 강제한 군사 쿠데타는 2022과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련의 전복 중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군사 정권은 종교 다원주의에 언제나 우호적인 것은 아니지만, 니제르에서는 쿠데타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을 정권에 임명했다. 전복은 대륙에서 긴 역사를 갖지만, 그들의 최근 활동 재기는 더 폭 넓은 민주주의의 퇴보를 내비쳤고 이는 종교 단체들에 있어 우려스러운 동향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통치와 안보의 균열은 부르키나파소, 말리, 나이지리아, 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모잠비크, 그리고 전역에 걸친 다른 국가들 가운데서 지하디스트 활동을 위한 여지를 남겼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스스로 2023년 1월 이래 지하디스트 무장단체에 의한 “살인, 강간, 그리고 마을에 대한 약탈이 말리 북동부에서 만연함”을 기록했다.

이슬람국가(IS) 집단 및 알카에다와 연계된 집단들이 가장 현저하게 확산한 것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이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 동부는 이슬람국가(IS) 집단에 동맹을 맹세한 이슬람 연합민주군에 있어 안전한 곳이 되었다. 연합민주군은 우간다를 위협롭게 하고자 했고, 수년 간 콩고 북동부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을 표적 삼았다. 2023년 1월에는 연합민주군이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 카신디시 경계 지역에서 예배 중에

폭탄을 폭파시켜 최소 12명의 사망자를 내고 수십 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다.

나이지리아에서 아직 활동하고 있는 보코하람 무장단체 구성원 수 천명이 무기를 내려놓았다. 이제 이 집단은 나이지리아의 북동부 및 나라 안의 다른 많은 지역들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ISWAP(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에 아득히 가려졌다.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풀라니 무장단체들에 의해 대개 기독교인 공동체에 대한 습격, 살인, 납치, 성폭력, 그리고 생계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 모든 폭력은 기독교인들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

2023년 4월 17일 - 7월 10일 기간에 플라토주에서 기독교 공동체에 가해진 일련의 공격은 나이지리아에서 잦은 폭력 급증의 한 예다. 파라-말람평화재단의 보고에 따르면, 이로 인해 315명의 기독교인과 31명의 무슬림이 목숨을 잃었다. 수 주 동안 이어진 공격의 결과로 무려 6,603개의 가정에 영향을 미쳤다. 18,751명이 내쫓겼는데 거의 다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는 0-5세 사이의 고아 6,066명이 있다. 국내 실향민들은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의 교회 지역 교회 협회 (COCIN-LCC) 가 주최한 14개의 수용소에 임시로 머물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도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이유로 특히 표적이 되지 않더라도, 이들은 에티오피아, 수단, 그리고 카메룬과 같이 지역 내에 더 큰 충돌 가운데서 더 취약하다. 기독교인들은 사실 상 처벌 없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쉬운 목표물이다. 이 같은 “편의에 의한 박해”는 이들과 가족, 그리고 미래 세대의 장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인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다

광대한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동향이 뒤섞여 있다.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빠르게 악화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향상되었다. 그래서 국가 전역에 걸쳐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감안했을 때 결과는 단지 1점 오른 점수를 나타냈다. 총점에 미치지 못해도 인도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더 폭력적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입증했다.

2022년 월드와치리스트는 신앙을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인도의 기독교인을 10명으로 총계했다.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에서는 17명, 그리고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에는 160명을 기록했다.

폭력 점수를 구성하는 다른 여러 범주에서 증가가 감지되었다: 기독교 교회, 학교, 그리고 기타 기관에 대한 공격 건수는 2022년 목록에서 91건을; 2023년 목록에서 180건을; 그리고 2024년 목록에서 5,900건 가까이 기록했다. 공격을 입은 기독교 사업은 각각: 2건, 37건, 그리고 1,572건이다.

가장 극적인 것은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보고 기간 동안 집에서 내쫓긴 인도의 기독교인 수가 62,000명을 넘었다는 것이다. 이는 380명을 기록한 2022년과 834명을 기록한 2023년에서 기하급수적인 급등이다.

폭력과 내쫓김이 급증한 중심지는 2023년 5월에 다수인 메이테이족과 소수인 쿠키족 사이의 교전이 시작된 마니푸르 북동부 주였다. 부족을 지정부족에 포함하도록 하는 메이테이족과 이것이 더 크고 대부분이 힌두교도인 부족으로 하여금 쿠키족 지역에 부딪치게 할 수 있어 반대를 주장한 기독교 다수의 쿠키족이 부딪혔다. 논쟁에서 흘러나온 폭력 가운데서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계속되었고 쿠키족을 향한 혐오 발언으로 뒤엉켰으며, 수백 개의 교회들, 심지어 메이테이족 성도들을 둔 교회들도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이들이 집에서 쫓겨났다.

유엔은 성명문을 통해 “대부분 쿠키 소수민족 출신의 모든 연령의 여성과 소녀 수백명을 겨냥한 젠더 기반 폭력의 이미지. 제기된 폭력은 운간, 거리에서 여성들을 나체로 끌고 다니는 것, 죽음을 초래하는 심한 구타, 그리고 살거나 죽은 채로 불태우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포를 언급했다.

마니푸르주와 인접한 미조람주에 있는 난민 수용소 상태가 악화되었다. 유엔은 더 확실한 인도주의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고 인도 정부는 더디게 움직였다. 테러방지 부대는 소수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보고가 있고 모든 상황은 온라인 상의 잘못된 보도와 통신 서비스의 중단의 혼란 가운데 빠졌다.

마니푸르의 혼돈 사태는 국가의 중앙 정부와 큰 부문을 나타내는 탄탄한 힌두 민족주의 익숙한 배경에 맞서 발생했다. 통치하는 바라티야 자나타당 (BJP)과 지도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보호 지붕 아래서 굉장한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국가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고, 순수 힌두교인 인도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폭력 사용을 피하지 않는다. 힌두교 배경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끊임없이 힌두교로 돌아가라는 압박 아래 있다.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는 마디아 프라데시주와 차티스가르주에서 적대감의 꾸준한 증가 가운데서 반기독교적 압박의 흔적을 기록했다. 예를 들어 2022년 말에 차티스가르주의 한 마을 주민들은 70 가정의 200명 가까운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떠나도록 최후통첩을 했다. 이의를 제기한 이들은 구타를 당했다. 또 2022년 말에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경찰은 목사 아홉 명을 “개종 활동” 죄로 체포했고, 그 중 한 명은 자신의 딸과 사위의 결혼 피로연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타르 프라데시주는 강제 종교 개종을 불법으로 하는 인도의 11개 주 중 한 곳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같은 강력한 탄압의 법적 구실을 제공하는 반면 힌두교도들에 대한 동등한 기소는 보기 힘들다.

한편, 인도 대법원은 나라의 “지정 카스트” 범주의 달리로 널리 알려진 구성원들이 무슬림과 기독교인으로 확대되어야 하는지 숙고하고 있다. 이것은 대규모 정치적 불안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아주 민감한 문화적 이슈이다.

2024년 인도 총선은 불안만 더할 것이다. BJP는 중앙 정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유세에서 종교적 갈등과 정치적 연료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부, 군중, 그리고 반란자들에 의한 전례 없는 공격에 처한 교회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보고기간 동안 41점 또는 그 이상을 기록한 모든 국가들 중 가장 많은 교회들이 공격을 당한 10개국은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에티오피아, 르완다, 수단,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그리고 앙골라이다. 이 국가들에서 공격을 당하거나 폐쇄된 교회들 또는 기타 공공 기독교 건물들의 합계는 믿기 힘들 정도로 (2024년 목록에 등재된 전체 78개국의 14,766곳 가운데서) 14,129곳을 차지했지만, 연구원들은 수 천개가 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겼다. 중국과 인도는 교회 공격 또는 폐쇄가 각각 10,000곳과 2,228곳으로 추정되어 1위를 차지했다.

교회에 대한 폐쇄 건수는 소위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단연코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이 용어는 중국 환경에서 오해의 소지가 자주 있었다. 처음에 ‘가정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모인 소규모의 등록되지 않은 가정 예배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곳들이 크게 성장해 호텔 시설 또는 사무실 임대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모임을 했다. 매주 흔히 수백, 심지어 수천명의 성도들이 이 교회들에 출석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시행된 조치를 이용하는 당국들에 의해 그러한 자유는 끝났다. ‘가정교회’는 이제 시초로 돌아가 눈에 덜 띄는 가정 예배 모임으로 무수히 갈라졌고, 많은 곳에는 목회자 리더십이 거의 없고 자원이 많지 않다. 그와 동시에 국가가 승인한 교회들의(TSPM 삼자애국운동) 많은 장소들은 어쩔 수 없이 폐쇄되거나 더 큰 교회들과 합쳐졌다. 이 같은 정부의 압박에 더해 TSPM의 새로운 규정들은 2023년에 시행되어 실



An alleyway in the historic village of Shaxi in Jianchuan County, Yunnan province, China © IMB



제로 공산당이 기독교의 우선순위와 가치들을 어떻게 과감히 재정립하고자 하는지 (특히 27조, 36조, 39조, 40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인도의 교회 공격은 공격적인 군중에 의해 자행된다. 한 예는, 2023년 5월 4일에 마니푸르 임팔의 추라찬드푸르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이다. 임팔의 도미닉 루몬 대주교에 따르면, 2023년 5월 4일 사태 발생 후 처음 36시간 동안 249개의 메이테이 교회가 (대개 기독교인) 쿠키족이 아닌 메이테이족 힌두교인들과 사나마히즘 신자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루몬에 따르면, 교회를 겨냥한 메이테이 군중들은 아람바이 텅골과 메이테이 리푼 자경 단체들을 통해 조직되었다. 대부분의 쿠키족 주민들은 사태 발생 후 처음 36시간 동안 같은 군중에 의한 극심한 공격 아래 있었고, 집에서 도망했다. 따라서, 메이테이족 가운

데 극단주의 부류들이 자신들과 (메이테이 기독교인) 쿠키족을 공격한 것이다.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니제르에서 교회 또는 공공 기독교 건물들은 일반적으로 대개 기독교 공동체를 습격하거나 침범하는 이슬람 반군들에 의해 공격을 당한다.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보고기간 동안 이 국가들 가운데서 공격을 당하거나 버려진 교회와 공공 교회 건물들은 줄잡아 950곳이었다. 나이지리아에서만 750곳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공동체에 대한 공격에서 침략자들로부터 도망한다. 그들의 가옥, 사업, 밭, 교회, 그리고 공공 기독교 재산이 (예를 들어 묘지) 버려지고, 그렇지 않으면 파괴된다. 강제 내쫓김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다.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보고기간 동안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 건수를 나열한 표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납치를 당한 기독교인 수 전체	1,099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납치를 당한 기독교인이 5명 이상	323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납치를 당한 기독교인이 10명 이상	157

어떤 상황에도, 이는 5명 또는 그 이상의 기독교인 희생자를 낸 사건 한 건당 (위 표를 참고) 작은 공동체라도 교회 또는 공공 기독교 건물 최소 2곳 또는 3곳이 공격을 입고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가 클수록 수치는 더 높았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경우에는 보고기간 동안 교회와 공공 건물 최소 750곳이 공격을 당했다.

알제리는 교회가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한 국가들을 나열한 목록에서 훨씬 밑에 있지만, 그곳에서 계속된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다. 복음주의개신교협의회 (개신교 상부 기관) 소속된 교회 46곳 중 2023년에 남아 있는 교회는 단지 4곳이었다. 몇몇 독립 교회들도 모임을 중단했다. 이와 같은 정세는 알제리 정부가 교회 지도자들을 심문하고 “승인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 또는 유사한 범죄로 그들을 기소해 토착 개신교 교회에 대한 압박을 늘리고자 2006년 법 이용 운동을 강화함으로 드러났다. 심문을 받는 가운데서 몇몇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폐쇄하라는 구령을 받았다. 과거에는 몇몇 교회들이 법정에서 항변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통해 교회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이는 새로운 동향이다. 교회 지도자들 및 교회에서 활발한 이들 모두해서 최소 18명의 기독교인들이 (집행 유예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정부 조치의 결과로, 압박은 남아있는 적은 수의 교회들이 2024년에는 모든 가시적인 활동들을 전부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늘어났다. 알제리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공간은 줄어들고 있음이 분명하다.



Constantine, Algeria © Pixels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10년이 넘는 시리아 내전은 이미 국가 내 기독교인의 존재가 흩어지고 줄어들게 만들었다. 2023년 2월에 발생한 치명적인 지진은 불안정한 상황을 더 심각하게 했다.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압박이 그렇게 급속히 퍼진 나라는 결코 시리아 만이 아니었다. 월드와치리스트에서 알제리의 점수는 급격했고 튀니지는 독재의 길로 더 돌아갔다. 그러나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7.8 규모의 지진은 세상의 시선을 시리아로 집중시켰다.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에서 시리아의 점수는 1점 올랐고, 이는 그다지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니지만 나라를 “극심한 박해” 단계로 밀어 넣기에는 충분했다. 전쟁의 다방면 폭력을 피해 붕괴된 경제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가는 이들은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한 폭력과 이슬람 압박의 만만한 표적이 되었다.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와 이슬람국가(IS) 단체의 부류들처럼 아사드 정권을 반대하는 이슬람 과격분자들은 공격 또는 납치에 취약한 지도자들의 역사적 교회들을 허물거나 장악했다.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 중 집에서 내쫓기지 않은 이들은 신앙을 표현할 여지가 거의 없다.

한편,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교회가 속한 기독교 공동체에 따라 정권의 태도가 결정된다. 모든 기독교 교회가 압박을 받지만,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은 역사적 교회들은 침례교와 펜테코스트파 같은 복음주의 교회들 보다 권리를 옹호할 지위를 더 누리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충돌에 걸려들고,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었다. 예를 들어 아프린에서 터키의 지지를 받는 병력이 쿠르드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다. Action for Humanity에 따르면, 참사의 결과로 전쟁의 폭력을 피해 최소 한 번 난민 캠프에서 거주한 이들 10명 중 9명이 다시 한번 난민이 되었다. 유니세프 책임자는 진동은 “더 많은 집, 학교, 그리고 아이들의 놀 곳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가

장 취약한 아이들과 가정들이 느끼는 안전감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폐쇄되거나 파괴되어 기독교인 아이들은 국립 학교 - 이슬람 학교에 출석해야 했기에 아이들은 이미 이 같은 충격에 특히 취약한 상태이다.

지진 이후 몇 주 만에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가 정부군을 공격하고, 이슬람국가(IS) 단체의 부류들이 공격을 개시해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기독교인 가정들은 또 다시 충돌에 휘말려 이주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무슬림 동포들이 자신들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과 모국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님을 확신했다.

중동 다른 지역에서의 기독교인의 삶 또한 건디는 것이 서서히 어려워지고 있다. 2023년에 튀르키예에는 쿠르디스탄 노동자당과 싸우기 위해 이라크의 기독교인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에 대한 다년간의 군사 침입을 계속했다. 싸움은 폭력을 피해 도망한 기독교인들이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심지어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이 가진 빈약한 정치 영역마저 점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슬람국가(IS) 단체들의 이라크 북부 침입에 맞서 싸우기 위해 2014년에 구성된 기독교인들의 준군사적인 단체가 바빌론 운동으로 알려진 정치 활동으로 바뀌었고, 이는 이라크 의회 329석 중 기독교인들을 위한 의석 5자리를 전부 차지한다. 현지 기독교 세력으로 알려진 바빌론은 주로 시아파 무슬림 공동체에서 모집했고, 이라크 시아파 정당, 준군사적인 바르드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연

계한다. 그 후로 부패와 다른 불미스러운 관행으로 비난을 받았고 지도자는 미국에 의한 제재로 이어졌다.

갈등의 중심에는 이라크 대통령이 루이스 사코 추기경의 역할과 권한을 인정한 대통령령을 철회해 주교로 하여금 총대주교좌를 바그다드에서 쿠르드 자치구 아르빌로 옮기도록 했다. 사코는 그를 오래 살던 곳에서 떠나게 만든 것은 바빌론 운동의 지도자 라얀 알-킬다니에 의한 것임을 주장했다. 사코는 그가 교회 건물과 기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라얀 알-킬다니는 이 주장들을 일축했다.

최종적으로는: 궁지에 몰린 기독교 소수집단에 대한 압박이 더 가해졌다.

2023년 이라크 선거법 개정안은 승리한 주요 정당들에게 민족 및 종교적 소수집단들을 위한 소수의 의석을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이러한 압박을 증가시켰다. 다양한 교파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독교인 대표자와 그들의 권익 수호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2023년 11월 의회 선거를 보이콧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 전문가에 따르면, 2023년 6월에 스웨덴에서 코란이 불태워지고 나서 지난 해 동안 이라크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이 증가했다.

기독교인 두 명이 소셜 미디어에 온라인 메시지를 게시하고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당한 것과 같이 쿠르드 자치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이 더 증가했다. 그





Tripoli, Tripoli District, Libya © Pexels

중 한 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한 명은 심리 중인 사건이 있는 가운데 안전을 위해 나라를 떠나야 했다. 두 사례는 온라인에서 널리 알려졌고, 이는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혐오 선동으로 이어졌다.

북부 아프리카에서 알제리 정부는 2023년에 북음주의개신교협의회와 관련된 교회들을 폐쇄하기 위해 2006년 법 이용 운동을 강화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폐쇄된 가운데서 알제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위한 공간은 과거에 비해 더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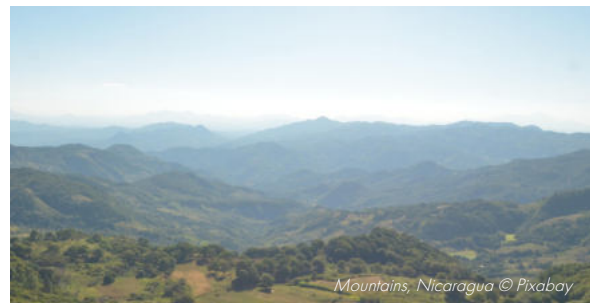
리비아는 월드와치리스트에서 3위까지 올라갔다. 2023년 5월에는 몇몇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두 명의 외국인 기독교인이 강제로 추방당한 큰 사건이 발생했다.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 보고 기간 동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이집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해 이주민 수백명이 리비아 정부당국에 의해 임의로 체포를 당했다. 그들 중 몇몇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에서 만연한 인신매매, (성적) 학대, 고문, 그리고 갈취에 대한 보고들이 수년간 나오고 있다. 기독교인 이민자들의 신앙은 이 같은 학대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대부분이 그들의 신앙을 엄격하게 비밀로 지키도록 했다.

튀니지의 월드와치리스트 점수는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이 계속해서 독재로 빠지면서 계속 오르고 있다. 2021년 비상 통치권을 확고히 한 뒤로 사이에드는 총리를 물러나게 하고, 의회를 해산하고, 판사를 해고하고, 그리고 정적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에는 중요한 야당 지도자가 체포되었고, 사이에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람들이 튀니지에 “범죄와 폭력”을 가져왔다고 비난하는 인종적 함축이 심한 연설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그로 인한 민중의 분노가 튀니지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에게 강하게 돌려졌고 많은 이들이 직업을 잃고, 다른 이들은 나라를 떠났다.

심지어 다른 어떤 중동 국가 보다 기독교인들이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월드와치리스트 상위 50개국에서 크게 동떨어진 레바논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특혜가 줄고 국가 생활에서의 영향을 목격했다. 교회와 기독교 소유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와 결합된 상황은 많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나라를 떠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니카라과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니카라과의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일년 전 월드와치리스트 50위에서 20위 상승해 30위를 기록했다. 니카라과의 점수는 8.3% 증가한 5점 이상이 올랐고, 이는 라틴 아메리카 및 모든 월드와치리스트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급속한 증가이다. 쿠바는 월드와치리스트 국가들 중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상위를 기록했고 니카라과의 예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공산주의 독재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맞서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했다. 그러나 박해가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니카라과이다.



Mountains, Nicaragua © Pixabay

니카라과의 점수가 급증한 것은 교회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적의가 증가한 산물이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이제 목적에 맞는 법체계로 둘러싸여 감시를 받고 있으며 더 이상 간접적이지 않다. 성직자이든, 세속적이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옹호자들은 체포된다. 교회와 관계된 대학들과 다른 단체들은 등록이 취소된다. 기독교 소유의 재산과 언론 매체들은 점령을 당했다. 가톨릭 신부와 주교는 간첩 행위로 기소되었고 일부는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수녀와 다른 교회 대표자들은 강제로 추방되었다. 공공 장소에서 일부 기독교 기념행사는 금지되었다. 심지어 니카라과 정부는 교황청에 대사를 파견했다.

어쩌면 정부의 탄압 운동의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2022년 말에 니카라과의 시민의 자유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던 마타갈파교구장 로날도 알바레스 주교에 대한 여러 혐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주교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미국으로의 추방을 거절한 후 2023년 2월에 26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했다. 국영 방송에서 판결을 낭독한 치안 판사는 주교가 “나라의 반역자이자 전부 실제 경쟁에서 니카라과 사회와 국가를 해치도록 저질러진 국가 보전 약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허위 보도 선전, 행사 방해, 심화된 반항 또는 권위를 멸시한 죄에 대한 공동 가해자로서 유죄라고 여겨졌다.”고 말했다.

알바레스의 유죄 선고, 니카라과의 악명 높은 모델로 교도소에서의 구금, 그리고 전반적이고 특히 가톨릭 교회의 종교 자유에 대한 정권의 공격에 전세계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유럽연합은 공식적인 규탄을 발표했고, 미 국무부는 연루된 니카라과 고위 관리들의 비자에 제한을 가했다. 미주기구 상임이사회는 오르테가가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양심,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를 유지하는 국제규약에 대한 이전의 약속에서 니카라과를 저버렸음을 비난했다. 그리고 9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니카라과 인권전문가 그룹은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만연한 인권 침해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이른다고 말했다.

교회에 대한 니카라과의 탄압은 2006년 선거, 그리고 특히 2018년 시도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단속 이래 오르테가 정권의 갈수록 더 독재적인 통치에 들어맞는다. 정부의 목표는 단순히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그들이 신뢰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들의 메시지가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렇게 니카라과는 월드와치리스트에서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동향을 선도하고 있지 않고, 단일 정당의 공산주의 쿠바와 보조를 맞추고 있지도 않다.

북한이 1위 자리를 재정립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월드와치리스트에서 20년 동안 1위 자리를 유지했고 기독교 신앙을 살아내기에 가장 힘든 단일 국가를 차지했다. 그러다가 2022년 목록에서는 2021년 여름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바로 뒤이어 2위로 내려갔다.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 보고기간 동안 나라를 떠날 수 있었던 모든 기독교인들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최악의 종교적 동기에 의한 폭력이 약화된 후에 - 결코 그친 것은 아니지만 - 북한이 다시 목록 맨 위로 이동했다. 올해에도 북한은 다시 한번 1위를 기록했고, 익숙했던 연간 양식은 저절로 재정립되었다.

또한 이곳 환태평양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처럼 중국의 영향력이 익숙하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8월에 평양이 서쪽에 있는 이웃과의 국경을 다시 개방하기 시작할 것을 발표하고 나서 그후 몇 주 동안 중국은 탈북자 수백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단체는 중국 정부당국이 8월에 북한주민 80명을, 그리고 9월에 추가로 40명을 더 강제 송환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10월 초에 - 2024년 목록을 위한 12개월 동안의 월드와치리스트 정보 수집 기간이 종료된 직후 - 중국은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다섯 번의 수송대를 보낸 것을 휴먼라이츠워치는 전했다. 이 보고는 “북한, 그리고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있는 한국인 지하교회 선교사”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다. 단체는 조국으로 돌아간 전체 탈북자 수는 무려 600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규모 송환을 확인했지만 관련된 탈북자 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국제법은 강제 송환을 금지한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대부분이 여성인 송환자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 구금되고 고문, 성폭력, 강제 실종, 그리고 처형에 직면할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신자들을 향한 정권의 무관용 정책은 항상 기독교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게 하는 강력한 이유였지만, 송환된 북한 사람들 중 기독교인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정부가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나서 국경을 넘고자 하는 시도는 더 이상 흔하지 않다.

월드와치리스트가 측정한 기독교인 삶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에 가해진 압박은 가장 높은 정도를 기록하고, 폭력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점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드와치리스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평양에서 종교적 신앙에 대한 압박은 마치 지구의 자전과 같이 끊임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끊임없는 탄압을 뚫고 나오는 신앙의 새싹이다. 예를 들어, 기도하기 위해 모인 가족 구성원 다섯 명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2023년 4월 뉴스 기사는 사실 자체 보다도 대중에게 매우 빠르게 전해진 것을 주목할 만했다.

2024년 기독교 박해 동향에 대한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오픈도어는 어떻게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오픈도어는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믿고, 예배하고, 홀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을 실천하고, 그리고 편협성과 차별로부터 자유할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처한 곤경을 특히 강조한다. 오픈도어는 정부로 하여금 폭력적인 공격자들로부터 보호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정의를, 가해자들에게는 책임을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한다. 오픈도어는 이것을 외교 정책과 외교적 관여에서 우선하도록 정부에 요청한다.

- 한국오픈도어

25개국에 지부를 두고 60년 넘게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지하고 강화하며 70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글로벌 회원 단체인 국제오픈도어 지부로 한국오픈도어가 있다. 오픈도어는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식량, 의약품, 트라우마 돌봄, 법적인 도움, 은신처 및 학교, 그리고 기독교 문헌, 훈련, 자원을 통한 영적 지원과 같은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Heart To Heart

WEEKLY

Open Doors

한국오픈도어 모바일 주간 소식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통해 매주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채널 추가하세요 +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 / 휴대폰 / 메일 / 카카오톡채널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